

## 이집트 영화에 나타난 이슬람 원리주의 연구 - 영화 <가젤의 피>와 <야쿠비안 빌딩>을 중심으로 -

|이복례, 이종화\*|  
Lee, Bok-Lye, Lee, Jong-Wha

### **A Study of Islamic Fundamentalism in Egyptian Cinema: Focusing on the Films <Deer's Blood> and <Yacoubian Build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and analyze how the films “Deer’s Blood” and “Yacoubian Building”, produced in Egypt, express Islamic fundamentalism, and how characters in these films perceive it. Accordingly, this paper analyzes the text of two films, classifies the characters into ‘multifaced/dynamic’ and ‘planar/stereotypical’ character types, and analyzes expressions and perceptions of Islamic fundamentalism. This paper finds that there are two differences in the way the two films show Islamic fundamentalist figures. The first is that “Deer’s Blood” only treats religious leaders and Muslims who have a fundamentalist disposition negatively, while “Yacoubian Building” criticizes fundamentalists and ethically denigrates all religious leaders regardless of their fundamentalist disposition. The second is that “Deer’s Blood” focuses on personal motives, while “Yacoubian Building” emphasizes social motives in describing ordinary characters who have been transformed into fundamentalists.

**[Key Words: Egyptian Film, Egyptian Cinema, Egyptian Movie, “Deer’s Blood”, “Yacoubian Building”, Character Type**

\* 이복례/제1저자/명지대학교/시간강사, E-mail: indeeplove@daum.net; 이종화/교신저자/명지대학교/교수, E-mail: sahramo@mju.ac.kr



## Analysis, Text Analysis, Expression and Awareness of Islamic Fundamentalism]

### I. 서론

이집트에서 원리주의와 테러를 주제로 한 영화가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0년대이다. 당시는 호스니 무바라크(Hosni Mubarak, 1981. 10 ~ 2011. 2 재임)가 통치하던 시기로 정권의 붕괴를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테러 활동이 급증하던 시기였다. 이에 이집트 정부는 영화라는 매체가 극단적 원리주의자들의 테러 활동을 막고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Khatib 2006, 67) 영화 산업을 장려했다. 그 결과 원리주의와 테러를 소재로 삼은 많은 영화가 개봉되었다.

본고는 영화 <가잘의 피(Deer's Blood, دم الغزال, 2005)>와 <야쿠비안 빌딩(Yacoubian Building, عمارة يعقوبيان, 2006)>을 통해 이슬람 원리주의가 각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또한 원리주의가 이집트 일반 시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두 영화를 비교·분석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이집트의 이슬람 원리주의 역사를 개괄하고, 제3장에서는 영화 <가잘의 피>의 '리샤'라는 인물을 통해, 제4장에서는 <야쿠비안 빌딩>의 '타하'라는 인물을 통해 영화에 나타난 이슬람 원리주의를 연구했다.

국외의 선행 연구로는 이집트 영화에서 이슬람 근본주의의 역할과 그 정체성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설명한 연구(Khatib 2006)가 있고 영화 제작 초기부터 무바라크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정권이 이슬람 급진주의와 테러리스트들의 정치적 주장을 규제하기 위해 영화를 어떻게 이용해왔는지를 밝힌 연구(Birnbaum 2013)도 있다. 또한 이집트 영화가 테러리즘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테러리스트들을 어떤 인간으로 묘사하였는지를 조사한 연구(Mosharafa 2017)와 <야쿠비안 빌딩>에서 평범한 이집트 하층민이 어떤 이유로 이슬람 근

본주의자가 되어 성전에 참여하여 순교자가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 준 연구 (Gardaz 2016)도 있다.

국내의 선행 연구로는 서양 영화에 나타난 이슬람에 대한 편견에 관한 연구 (안신 2010)와 소설 『야꾸비얀 빌딩』에 나타난 여러 사회 문제 중 이슬람의 파행과 극단주의의 문제를 다룬 연구가 있다(김능우 2011). 국내의 선행 연구들이 이슬람 원리주의의 정체성, 군부 정권과 이슬람 원리주의와의 관계, 테러리스트에 대한 묘사, 서구 영화에 비친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이슬람의 파행 등 주로 이슬람 원리주의와 테러에 대해 다루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두 편의 영화 <가잘의 피>와 <야꾸비얀 빌딩>을 통해 리사와 타하라는 두 인물 유형이 어떤 이유로 이슬람 원리주의자가 되고 원리주의자가 되고 난 이후에 이들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지를 상호 비교·분석했다는 점에서 다른 선행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본고의 연구 방법은 영화 텍스트 분석 방법과 인물 유형 분석 방법이다. 텍스트는 작가는 문학 작품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이며 크게는 기록되거나 인쇄된 모든 신문, 잡지뿐만 아니라 연극, 영화, 뮤지컬 등의 시나리오나 대사 등도 포함된다. 레슬리 피들러(Leslie A. Fiedler)는 영화의 텍스트를 문학 작품 텍스트의 확장으로 인식하고 문학 작품을 읽고 분석하는 것처럼 영화 텍스트를 보고 분석했다(김성곤 2017, 12). 영화 ‘대사’라는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는 텍스트 자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의미를 객관적으로 포착하는 방법(수잔 헤이워드 1997, 283)을 이용했다. 이를 위해 영화의 등장인물들 간 대화 내용을 녹취하고 주요 장면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분석하였으며 그 속에서 암시된 의미를 찾아내었다.

이슬람 원리주의로 인한 갈등과 문제점을 드러내는 인물 유형은 영화 속 사건이나 인물들 간 대화와 심리적 변화와 갈등을 경험하여 때때로 모순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등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다면적’, ‘역동적’인 인물형과 성격의 변화가 없는 ‘평면적’ 인물형, 관객이 인물의 행동과 태도가 예상 가능한 ‘유형적’인 인물형으로 나누어 분석했다(김용수 2015, 229-231).

## II. 이집트 이슬람 원리주의 역사

이집트의 종교 갈등은 이슬람교와 콥트교의 갈등뿐만 아니라 무슬림 간의 갈등도 존재한다. 무슬림 간 갈등의 주체는 군부 정권에 협조하면서 각종 이권을 누리는 ‘종교 엘리트’ 세력과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이슬람주의자’ 세력이다. 이들 두 세력 간의 갈등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무바라크 정권 하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었다(서정민 2002, 172).

정부를 지지하는 종교 엘리트 세력과 갈등을 일으키는 이슬람주의자 세력의 대표적인 집단이 무슬림형제단(Muslim Brotherhood)이다. 무슬림형제단은 하산 알반나(Hasan al-Banna)에 의해 1928년에 결성된 단체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이슬람 단체로 1940년대에는 회원이 50만 명이나 되는 대중적 단체로 발전했다. 그러나 무슬림형제단은 1954년 가말 압델 나세르(Gamal Abdel Nasser, 1954. 4 ~ 1970. 9 재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이후 정부에 의해 불법화 되었으며, 1981년 안와르 사다트(Anwar Sadat, 1970. 10 ~ 1981. 10 재임)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다른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와 함께 더욱 정부의 규제와 감시를 받게 되었다. 이후 무슬림형제단은 1984년 이집트 총선에서 제도권 진출을 시도했으나 정부는 이 단체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무슬림형제단을 비롯한 일부 원리주의 단체는 국가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빈민가, 판자촌과 같은 지역에 조직을 건설하고 민간 모스크를 통해 조직의 메시지를 선전하고 새로운 회원을 가입시켰다(Kepel 2003, 149). 그 중 ‘가마아 이슬라미야’는 정부를 향한 폭력 행위만이 샤리아를 적용시키는 이슬람 국가를 수립할 수 있다고 믿고 이를 실천했다. 가마아 이슬라미야는 또한 그들은 샤리아를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강제로 적용시키고 ‘악행 근절’이라는 명분으로 비디오나 주류를 판매하는 상점을 불태우고 여성에게 이슬람식 복장과 히잡 쓰기를 강요했다(사메 나기브, 김용욱 2011, 265-266). 이후 이 단체는 정부 요인의

암살과 외국인 관광객을 향한 테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 투쟁을 계속했다.

1990년대 초 무바라크 정부는 무슬림형제단을 비롯한 지하드 조직에 대해 ‘공격적 파괴’ 정책을 통해 이슬람 단체에 대한 탄압을 지속했다. 1992년 5월부터 통행금지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인 2천명을 동원하여 원리주의자들을 잡아들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군인 1만 6천 명이 원리주의 단체를 파괴하는데 동원되어 전국에서 원리주의자들을 일망타진 하려는 작전이 시작되었다. 이후 약 5년간 4만 7천 명에 이르는 원리주의자들을 구속하였고 이에 더해 군사정권은 고문, 인질 억류, 암살, 처형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조직을 무력화 시키려 했다(사메 나기브, 김용욱 2011, 266). 급진적인 이슬람 조직은 무고한 관광객들까지 희생시키는 극단적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일반 무슬림 시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들의 사회적 기반이 약화되었다.

다른 급진적 이슬람 단체들이 무력화됨으로써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로는 무슬림형제단이 유일하게 대중적 지지 기반을 보유한 저항 운동 조직이자 정치 운동 조직이 되었다. 무슬림 형제단은 원래 기반이었던 일반 서민뿐만 아니라 의사, 기술자, 치과 의사, 변호사, 언론인 등 전문가 집단들을 새로 가입시키기 시작하며 점차 그 외연을 확장했다(사메 나기브, 김용욱 2011, 268-269). 이를 바탕으로 무슬림형제단은 합법적 정치권력을 얻기 위해 제도권에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렸다. 2005년 9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를 세우지 못했지만 그해 11월에 시행된 의회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을 무소속으로 출마시키면서 의회의 20%에 달하는 의석을 차지했다. 이로써 거대 야당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무슬림형제단과 무바라크 정권과의 갈등은 지속되었다. 정부는 무슬림형제단의 단원을 매해 대규모로 체포하였고 2009년에는 온건한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도 불허하는 등 차기 대권에 도전하는 세력을 원천 봉쇄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집트 시민들은 2011년 ‘아랍의 봄(Arab Spring)’ 이후 30년간 장기 집권한 독재자 무바라크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2012년 6월 민주적 선거로 무슬림형제



단에 기반을 둔 무함마드 무르시(Muhammed Mursi, 2012. 6 ~ 2013. 7 재임)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무슬림형제단은 ‘이슬람 국가’의 수립으로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들은 빈곤층과 노동자가 겪는 불평등과 착취, 대졸 실업자들과 중산층의 소외감, 부자들이 두려워하는 혼란과 무질서, 젊은 여성들이 직장과 거리에서 겪는 성희롱과 차별에 대한 공통된 해결책이 ‘이슬람 국가’의 수립에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사메 나기브, 김용욱 2011, 277).

그러나 무르시 정권은 같은 이슬람 정파 중 하나인 살라피스트(Salafist)인 알누르당(al-Nour Party)까지도 등을 돌릴 정도로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정책을 펼쳤다. 또한 대통령에게 무조건적인 면책 특권과 초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소위 ‘파라오 헌법’을 통과시켜 자유주의 세력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1년여 만에 퇴출되기에 이른다(인남식 2013, 6). 이후 알시시 군부 정권이 다시 부활하면서 이집트의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의 미래는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 III. <가잘의 피>에 나타난 이슬람 원리주의

영화 <가잘의 피(2005)>에서 원리주의에 대한 문제는 하난(Hanan)이라는 한 여자를 둘러싼 두 남자의 싸움에서 드러난다. 하난의 결혼식 파티 도중 경찰이 들이닥쳐 새신랑을 비롯하여 하시시를 소지한 모든 하객들을 잡아간 사건을 계기로 결혼식은 깨진다. 그러자 하난을 좋아하고 있던 드러머 리샤(Risha)가 그녀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그녀를 돌봐 주겠다고 청혼한다. 역시 하난을 좋아해 그녀를 차지하고 싶어 하던 폭력배 아티프(Atif)가 이 장면을 보고 리샤를 동네 사람들 앞에서 구타하고 심한 모욕을 준다. 리샤는 종교와는 거리가 멀고 심지어는 종교적 금기 행위를 일삼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리샤는 순전히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원리주의 조직에 가입하게 된다. 아티프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동네에서 가장 큰 권력을 휘두르는 그 조직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기 때문이다.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 흰 두건을 쓴 원리주의자들이 <가잘의 피>의 초반부터 등장한다. 그들은 두세 명씩 무리지어 빈민가 골목을 다니며 골목에서 일어나는 세속적인 일들에 대해 감시한다. 사람들은 좁은 골목에서 원리주의자들과 부딪히지 않으려 몸을 피할 정도로 그들이 등장하면 놀라고 두려워한다. 벨리댄서가 춤을 추고 있는 하난의 결혼식 파티 무대 위에 폭력배 아티프가 올라와 벨리댄서 바드리야(Badriya)의 가슴에 돈을 넣으며 함께 춤을 추려고 하자 파티를 지켜보고 있던 세 명의 원리주의자들이 모두 눈살을 찌푸린다.

원리주의자1: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기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죄를 지은 거요.

원리주의자2: 그녀(신부)에게 오빠가 있었다면, 그는 이런 추태를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리주의자3: 그는 그녀가 저런 남자랑 결혼시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이때 결혼 파티를 주관하던 압두가 세 사람에게 다가오자 그들은 자리를 뜨려고 한다.)

압 두: 왜 서둘러 가시오? 아직 이른 시간인데요?

원리주의자1: 당신 일이나 신경 쓰시오. (권위적으로 말하고는 가버린다.)

압 두: (혼잣말로) 내 일? 나는 항상 내일에 신경을 쓰지요. 당신들도 그랬으면 좋겠군요!)

<가잘의 피>에서 원리주의자들은 마치 자신들만 옳고 깨끗한 세계에 사는 신의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하며 소시민들과의 삶과는 괴리된 모습을 보인다. 영화는 초반부터 원리주의자들과 일반 소시민들과 부딪히는 장면을 통해 소시민들이 느끼는 그들에 대한 인식을 보여 준다. 압두는 종교주의자들이 남의 결혼식에 와서 못마땅한 얼굴로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닌 종교주의자 본연의 임

1) <가잘의 피> (00:06:00)



무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리샤는 원리주의자들을 대동하고 골목의 또 다른 결혼식 파티에 위협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파티에서 춤을 추던 댄서 바드리아가 리샤를 보고 반가워 하며 그에게 북을 쳐줄 것을 부탁하지만 리샤는 파티를 망치고 바드리아를 위협한다.

바드리아: (수염을 기른 리샤를 보고 놀라서) 리샤, 당신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여러분 리샤가 왔어요! 북 좀 쳐주겠어요?

리 샤: (고압적인 태도로 북을 던지고 피리도 부셔 버린다.) 바드리아, 우리의 오랜 친분을 존중하여 당신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주겠소. 회개하고 베일을 쓰던가, 아니면 내일 동이 틀 무렵 동네를 떠나시오.

바드리아: (리샤가 떠나고 혼잣말로) 맙소사! 수염이 더 길어지면 무슨 짓을 할까? (마이크를 들고 큰 소리로)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큰 거짓말쟁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믿어도 나는 믿지 않아! 사탄이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해도 나는 당신을 믿지 않을 거야, 북치는 소년!<sup>2)</sup>

리샤는 자신이 북을 치고 그에 맞춰 춤을 추던 한 팀이자 연인 관계에 있던 바드리아에게 히잡을 쓰라고 강요할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마을을 떠나라고 명령한다. 바드리아는 리샤가 갑자기 원리주의자가 되어 나타나 자신을 내쫓으려 하자 화가 나서 그에게 소리친다.

원리주의자들은 리샤가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지만 리샤를 이용하여 그들의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그를 받아들인 것이다.

원리주의자: 리샤는 신앙심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적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우리 쪽으로 전향했죠. 그와 그의 적, 둘 다 골칫거리죠. 하나는 드러머이고, 다른 하나는 폭력배죠. 둘 다 폭

2) <가잘의 피> (00:47:50)



같이 나빠요.

세 이 크: 맞소 하지만 드러머는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의 신앙은 약해요. 그는 우리의 힘에서 이득을 얻고자 우리에게 합류했죠.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요구된 것을 다 이행하지 않았나요? [...] 모든 작전을 그가 수행하도록 해 봐요. 특히 비난을 일으키는 어려운 일어요. 그가 죽거나 체포되어도 우리는 우리 중 누구도 잃지 않을 것이오.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얻는 이익보다 수천 배 더 많은 이득을 얻을 거요. 그가 가치가 있다고 증명된다면, 그를 아미르로 만드는 것은 해가 되지 않을 거요. 나는 그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것이라고 확신하오.)

리샤가 원리주의 단체에 합류한 이유가 폭력배 아티프에게 복수하기 위한 개인적 원한 때문임을 알면서도 원리주의 지도부는 위협하거나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일들을 리샤에게 시키기 위해 그를 받아들인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들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종교적으로 그들의 이념에 어긋나는 사람까지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리샤를 이용하는 모습에서 자당착적인 조직의 모순이 드러난다.

원리주의자가 된 리샤는 수염을 기르고 행동과 말투도 위협적으로 변화한다. 원리주의 단체는 리샤에게 ‘아미르’나 ‘셰이크’라는 직함을 주고 두세 명의 단원들을 그에게 붙여 주어 함께 다니면서 거리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위협하고 권력을 과시한다. 그는 동네의 어른인 압두(Abdo)와 가베르(Gaber)에게까지 불손하게 행동하고 거칠게 말함으로써 점점 기존의 인간성을 상실해 간다.

리 샤: 당신들은 나를 축하해줘야 해요. [...] 나는 ‘아미르’입니다.

가베르: (웃으며 비꼬듯) 자네 이름을 바꾸었나? (이 말에 리샤는 기분 나쁜 듯 팔짱을 낀다.)

압 두: 자네 언제 왕이 되었나?

리 샤: (발끈하며) 압두, 말조심 하시오.

3) <가잘의 피> (00:59:27)



압 두: 나는 자네가 무섭지 않네.

리 샐: 무서워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무서워하니깐요. (리샐은 주사위 놀이판을 뒤집는다.) [...] 하난을 어디에 데려갔나요? [...] (호텔 메이드라는 말을 듣자) 좋은 일은 아니군요.

가베르: 드러머와 댄서는 좋은 일인가?

리 샐: (화가 나 테이블을 내리치며) 가베르, 당신이 노인만 아니었다면, 나는 즉시 당신을 매달아 채찍질을 했을 거요.

압 두: 진정하게 리샐. 가베르가 뭔가를 훔쳐 가지라도 했나?

리 샐: (또다시 테이블을 내리치며) ‘셰이크 리샐’라고 부르시오! 압두!<sup>4)</sup>

리샐은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던 가베르와 압두 앞에 나타나 자신이 ‘아미르’이자 ‘셰이크’라 호칭하며 예전의 리샐이 아닌 원리주의 조직을 이끄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었음을 과시한다.

리샐은 비디오 상점을 불태우는 등의 조직에서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한다.

이웃집 여자: (리샐과 원리주의자들이 몽둥이를 들고 골목에 들이닥친다.) 댄서의 엉덩이에서 눈을 떼지 않았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이제 그는 그들(원리주의자)에 가담했네? (그들은 근처에 있던 여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카페에 있던 라디오를 박살낸다.)

리샐 : 하느님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가라! 오늘 밤부터 악마는 우리와 함께 살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음탕함과 부도덕함, 추잡한 것, 타락과 죄악도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 이 구역은 알라의 법에 복종할 것이다! 경건한 청년들이여! 타락한 것을 제거하고 알라가 금지한 것을 파괴하라! (원리주의자들은 진열장에 진열된 비디오와 상점을 불태운다.)<sup>5)</sup>

4) <가잘의 피> (01:00:48)

5) <가잘의 피> (01:07:52)

리샤는 몽둥이를 들고 와 사람들을 위협하고 라디오와 비디오 상점을 불태운다. 이 장면은 실제 원리주의 단체가 빈민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념을 강요하고 그들의 눈에 세속적인 상점들을 부수었다는 모습과 일치한다.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원리주의자들은 동네 폭력배들조차도 두려워하는 존재이다.

폭력배1: (술집에 모여 있다) 아티프,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좋지 않아.

폭력배2: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어.

폭력배3: 수염 기른 놈들은 너무 강해. 그들은 우리를 목사발로 만들 거야.

폭력배4: 맞아, 사람들도 그들 편에 서겠지. 신의 말을 전하는데 누가 그들 편에 서지 않겠어?

아티프 : 맞는 말이야. 리샤를 빼면 그 누구도 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그들은 계집질이나 하는 놈이고 마약쟁이야. 나는 그가 코란 한 구절도 암송할 수 없다는 데 내기를 걸겠어.

폭력배1: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잖아.

아티프 : 겉모습! 애들아, 우리는 손을 잡아야 해.

폭력배2: 이 파도는 우리에게 너무 높아. 우리는 그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아티프만 남긴 채 다들 자리를 뜬다.)<sup>6)</sup>

아티프는 폭력배 친구들을 모아 리샤와 원리주의자들에 대항할 힘을 모으고자 하지만 폭력배들은 원리주의자들이 너무 강하다며 아티프의 의견에 반대한다. 폭력배들은 원리주의자들이 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원리주의자들의 편에 설 것으로 여기고 애초에 그들에게 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그 정도로 원리주의자들은 무서운 존재로 여겨진다.

이렇게 원리주의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한 리샤는 원리주의자가 되고자 했던 자신의 목적을 완수한다. 주변의 원리주의자들은 리샤가 폭력배 아티프의 손

6) <가잘의 피> (01:06:30)



을 절단할 때조차 구경만 하거나 오히려 그를 부추기까지 한다.

- 아티프 : 원하는 게 뭐야, 리샤?
- 원리주의자1 : 이 분은 셰이크 리샤요! 신앙심 없는 자여! 아미르에게 공손하게 말하시오!
- 리샤 : 알라께서 나를 회개하게 하셨고 믿음과 경건함으로 나를 축복하셨다. 나는 이제 신의 법을 시행하기 위해 일하지.(주변 원리주의자들에게 묻는다.) 샤리아 하에서 이 도둑놈의 처벌은 무엇인가?
- 원리주의자들: (다같이) 그의 손을 자르십시오! 그것이 신의 법입니다!
- 리샤 : 나는 신의 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네. (리샤가 칼을 들고 아티프에게 가서) 이 손으로 훔쳤나?
- 아티프 : 이 손은 네 놈을 때린 손이다! (리샤는 단칼에 그의 손목을 자른다.)<sup>7)</sup>

원리주의 조직은 불법적인 일을 해야 할 때 리샤를 이용한다. 리샤와 같은 위선적인 거짓 원리주의자는 그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진다. 원리주의 조직 지도부는 리샤로 하여금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면 자신들의 조직에는 해가 없기 때문에 리샤가 아티프의 손목을 자를 때에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지도부가 조용히 웃는 장면에서 이념적 원리주의자들의 위선적 모순이 드러난다.

리샤는 아티프의 손목을 자름으로써 개인적 복수를 완수하고 난 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옛 연인인 바드리아를 찾아가 그녀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마음대로 농락한다.

- 바드리아: (슬립 차림에 TV를 보고 있다.) 리샤? 여긴 웬일이예요?
- 리 샤: 셰이크 리샤라고 부르시오. 바드리아: [...] 당신이 그리웠어. [...] 당신의 품에 숨으러 왔어요. (강제로 그녀를 안는다.)
- 바드리아: (거부하며) 그건 예전 일이죠. 내가 당신을 사랑했을 때.

7) <가잘의 피> (01:19:30)



리 샤: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바드리아: (화가 나서) 나를 사랑해?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를 어떻게 정당화하려고? 나에게 당신의 축복을 내리고 싶은 거야? 아니면 나를 당신의 하렘 중 하나로 만들려고?  
 리 샤: 그게 무슨 문제야? 잘못됐나?  
 바드리아: 이것을 뭐라고 부르더라? 셰이크? 이것은 간통이야! 당신 수염이나 존중하라구!  
 리 샤: (그녀의 옷을 벗기다가) 설명하려 해도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바드리아: 당신이 나를 망쳐놨는데 내가 무엇을 이해해야 해? 난 큰 기회를 잡으려던 참이었어, 이 개자식아.  
 리 샤: 진정해요. 마리화나 두 개가 있는데 이걸 피우고 좋은 시간을 가집니다.  
 바드리아: 재미 보려고 여기 왔어? 꺼져! [...] (리샤는 강제로 그녀의 옷을 찢는다.)<sup>8)</sup>

영화는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한 리샤를 통해 위선적 원리주의자의 실태를 보여 준다.

리샤는 바드리아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를 쫓고 있던 경찰과 맞닥뜨리고 무고한 사람들과 경찰을 향해 총을 쏘고 도망간다. 원리주의자들을 두려워하는 소시민의 모습은 바드리아가 이사한 곳을 알려준 카페 종업원과 그녀에게 데려다 준 운전수를 통해 알 수 있다.

카페 종업원: (경찰에게 묻는다) 당신은 대통령이 시키는 것은 어떤 것이든 하지요?  
 경찰 : 물론이지.  
 카페 종업원: 우리도 그래요. 당신도 알다시피 셰이크 리샤는 우리 구역의 대통령이에요. 그가 차를 가져오라고 해서 나는 운전사를 고용했죠.  
 운전수 : 저는 우리 구역 대통령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sup>9)</sup>

빈민가 골목에서 대통령은 리샤와 원리주의자들이라는 카페 종업원과 운전

8) <가잘의 피> (01:23:32)

9) <가잘의 피> (01:25:21)



수의 진술은 영화가 의도했던 바대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적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다.

<가잘의 피>에서 나타난 인물 유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표1 ] 이슬람 원리주의를 보여 주는 인물 유형

	리샤	셰이크 & 원리주의자들
역사적·사회적 지시 대상	보통 시민 → 원리주의자	반정부의 이념적 원리주의자
인물의 특성	다면적, 역동적	평면적, 유형적

리샤는 영화 속에서 내면의 변화와 갈등을 경험하는 ‘다면적’, ‘역동적’ 인물 유형이다. 즉 리샤는 원래 원리주의자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으나 복수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원리주의자가 되는 다면적 인물 유형이다. 그리고 원리주의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 빈민가의 왕자로 군림하며 온갖 악행을 일삼는 역동적 인물 유형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에 비해 셰이크와 원리주의 단체 지도부, 그 외 원리주의자들은 그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특징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보여 주는 성격과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평면적’, ‘유형적’ 인물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IV. <야쿠비안 빌딩>에 나타난 이슬람 원리주의

영화 <야쿠비안 빌딩(2006)>에는 정부에 협력하고 각종 이권을 누리는 종교주의자 세력인 ‘종교 엘리트’와 정부에 반대하여 테러 활동으로 국가를 전복시키고 이슬람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이슬람주의자’ 세력 간 갈등의 주체가 잘 드러난다.

[ 표2 ] 이슬람 원리주의를 보여 주는 인물 유형

	셰이크 살만	타하	이맘 & 셰이크 샤키르
이념적 성향	비원리주의자	원리주의자	
역사적·사회적 지시 대상	친정부 종교 엘리트	보통 시민 → 원리주의자	반정부 이슬람주의자
인물의 특성	평면적, 유형적	다면적, 역동적	평면적, 유형적

타하(Taha)는 영화 속에서 원리주의자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내면의 변화와 갈등을 경험하는 ‘다면적’, ‘역동적’ 인물형이며 친정부의 종교 엘리트를 상징하는 셰이크 살만(sheikh salman)과 그 외 반정부 이슬람주의자를 상징하는 이맘과 셰이크 샤키르(sheikh shakhir)는 성격과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평면적’, ‘유형적’ 인물형이다.

셰이크 살만이 친정부 종교 엘리트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핫즈(Hajj)와의 대화를 통해서이다. 꿈에서 젊은 여성과 사랑을 나누는 꿈을 꾸 핫즈는 모스크의 셰이크 살만을 찾아가 상담을 받는다.

핫즈 : (망설이며 말을 꺼낸다.) 나는 꿈에서 어떤 이상한 것을 봐요. 내 나이에 여전히 짓는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상상해 봐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내!

셰이크 살만: 알라는 당신에게 좋은 건강을 주셨군요! 그것은 악의 길을 모르는 종교적인 사람에게는 나이와는 관련이 없는 자연스런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와이프는 어떤가요?

핫즈 : [...] 그녀는 더 이상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다가가면 그녀는 말하죠. “점잖게 행동하세요. 당신 아들이 성인이 되어가고 있다고요!” 설사 그녀가 동의한다 해도 그녀도 내 나이로 쉽게 피곤해 하죠.

셰이크 살만: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매우 쉬운 일이에요. 다시 결혼하세요.



핫즈 : 너무 두렵군요. 내 나이에 다시 결혼하는 것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이요.

세이크 살만: 사람들의 가십은 알라의 법과 견줄 바가 아니죠. 4명의 여인과 결혼  
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핫즈 : 내 아들들은요?

세이크 살만: 종교가 허용한 것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죠. 그것은 알라의 법이  
요!<sup>10)</sup>

세이크 살만은 종교 지도자에게서 기대되는 대답과는 달리 핫즈가 원하는  
대답을 해준다. 세이크 살만은 핫즈에게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은 신이 주  
신 권리라며 신의 이름을 빌어 조언해준다. 그는 핫즈의 후원을 받는 종교 엘리트  
에 속하는 인물로 위선적인 종교주의자의 전형을 보여 준다. 그의 조언으로  
핫즈는 비밀 결혼을 첫 번째 아내 몰래 감행하고 두 번째 아내 수아드(Suad)로  
부터 철저히 성적 만족만을 취한다.

<야쿠비안 빌딩>에는 종교 엘리트인 세이크 살만과는 또 다른 성격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수 등장한다. 그들은 사원에서 설교하는 이맘, 세이크 샤키르, 사  
막의 훈련 캠프의 수장으로 있는 세이크 벨랄(sheikh belal) 등의 이슬람주의자  
들이다. 이들 모두는 반정부 무력 투쟁으로 국가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인물이다.

경찰대에 낙방한 이후 들어간 대학에서 우연히 만난 한 선배와 함께 모스크  
에 간 타하는 이맘의 설교에 공감하게 된다.

이맘 : 대통령은 이슬람 샤리아와 민주주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  
만 신은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슬람 샤리아는 작  
동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고통 받는 나라에서는요! 정부는 술을 팔아서, 도  
박과 여행업으로 이익을 만들고 있어요. 가장 나쁜 것은 정부가 그 종사자  
들을 고용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봉급은 거기에서 나온 돈이죠. 그 병든 돈

---

10) <야쿠비안 빌딩> (00:18:05)





으로 사람들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국가가 민주주의화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회주의자나 무신론자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이슬람화 되기를 바랍니다!<sup>11)</sup>

<야쿠비안 빌딩>은 셰이크 살만과 같은 세속화된 종교 엘리트도 비판하지만 이념적 원리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세계관 또한 위험하다는 견해를 보인다. 이막의 설교 내용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극단적 이슬람주의자이 선동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연인 부사이나(Buthayna)와 헤어지고 나서 실의에 빠진 타하가 위로를 받고 자 셰이크 샤키르를 찾아가고 그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한다.

셰이크 샤키르: 진실한 신자들은 항상 낙천적이어야 해요. 비 온 뒤에는 태양이 뜬 다음.

타하 : 그녀는 문을 잠그고 열쇠를 던져 버렸어요.

셰이크 샤키르: 당신의 운명은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일 수도 있소. 그녀가 세상의 유일한 여인은 아니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슬퍼하지 마시오. 당신은 여자와의 사랑을 더 좋아하오? 아니면 지하드? 여자를 사랑하는 것? 신을 사랑하는 것?

타하 : 감사합니다, 셰이크. 제 마음이 안정되었어요.

셰이크 샤키르: 중요한 것에 집중합시다. 내일은 특별한 날이요. 당신이 제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라오, 타하.<sup>12)</sup>

셰이크 샤키르는 타하의 이별에 대한 아픔에 공감하는 척 하지만 결국 그의 조언은 연인이나 가족과의 사랑보다는 이슬람 국가를 위한 더 큰 대의를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무슬림이라고 말한다. 그것이야말로 알라가 타하에게 원

11) <야쿠비안 빌딩> (01:24:16)

12) <야쿠비안 빌딩> (01:29:09)



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타하를 극단적 원리주의 이념 속에 끌어들이  
다. 셰이크가 타하를 위로할 때 그의 어조나 표정은 어떤 변화도 없이 운명이나  
지하드, 신과 같은 종교적 이념만을 타하에게 주입시킬 뿐이다.

셰이크 샤키르의 조언대로 타하는 이슬람 국가를 세울 것을 주장하는 대학  
생들의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잡힌다. 타하가 온갖 고문에도 시위의 주동  
자 그룹을 발설하지 않자 경찰 간부는 남성 간수로 하여금 타하를 강간하게 한  
다.

셰이크 샤키르: 걱정했다네. 자네 오래전에 풀려났지 않나.

타 하 : 저는 그 이후로 저 자신을 감금하고 있었어요 나는 단지 당신을  
만나러 나왔어요.

셰이크 샤키르: 우리에게 대해 말했나?

타 하 : 내가 말했으면 그들은 나를 풀어주지 않았을 거예요.(셰이크 샤키  
르는 발설하지 않은 것을 고마워한다.) 당신은 내게 일어난 일을  
모를 겁니다.

셰이크 샤키르: 상상할 수 있네,

타 하 : 그것은 상상 밖의 일이에요.

셰이크 샤키르: 무신론자(이교도)들은 감히 뭐든지 하지.

타 하 : 무신론자들도 그렇게는 안합니다.

셰이크 샤키르: 진정하게. 나는 자네가 그 일을 잊고 학교와 학업에 돌아가길 바  
라네. [...] 고문이 그렇게 심했나?

타 하 : 그들은 나를 강간했어요.

셰이크 샤키르: 그만하게! 그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게! 사람들이 우리  
를 주시하네.<sup>13)</sup>

타하는 셰이크 샤키르의 말대로 시위에 참여했다가 고문까지 당했으나 정작  
셰이크 샤키르는 타하 개인의 안위를 걱정하기 보다는 조직에 대해 타하가 된

13) <야쿠비안 빌딩> (01:41:51)

가를 발설했는지를 더 궁금해 한다. 그리고 강간까지 당한 타하에게 그저 그 일을 잊고 학교로 돌아가 원래대로 생활하라고 조언할 뿐이다.

타하가 부사이나와 이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셰이크는 타하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는다. 이러한 셰이크를 통해 냉혹하고 이념에만 집착하는 이슬람주의자의 비인간적인 실상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무고한 시민이 테러의 희생양이 되어도 그것은 신이 정한 지하드의 길이므로 당연히 직면해야 할 운명이라는 인식을 보인다.

경찰에 강간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타하는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본격적으로 원리주의자의 길로 들어선다. 타하가 원리주의자가 된 동기는 국가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어보려는 사회적 동기 때문이었다. 셰이크 사키르에 의해 사막의 테러 훈련 캠프에 간 타하는 그곳에서 셰이크가 정해준 여인과 혼인도 한다. 그리고 때가 되어 테러 활동에 투입된다. 그러나 타하는 첫 번째 임무에서 자신을 심문하던 경찰 간부를 알아보고 자신의 임무도 망각한 채 그에 대한 복수심으로 그를 저격하고 타하 자신도 죽음을 맞이한다.

영화 <야쿠비안 빌딩>은 부사이나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원리주의자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

- 타 하: 좀 먼 사원에 다녀왔어. 이맘이 설교를 길게 하더라고  
 부사이나: 종교는 선동하곤 하더라. 기도할 만한 가까운 사원을 찾아보는 게 어때? [...] (타하의 수염을 바라보며) 수염을 기르고 있어?  
 타 하: 이걸 절대 깎지 않을 거야. [...] 나는 네 행동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부사이나: 너는 내 보호자도 아니잖아?  
 타 하: 알아!  
 부사이나: 우리는 끝이야.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길이 있어. 너는 종교적인 수염을 기르고 나는 짧은 스커트를 입어. 우리는 함께 가지 못하겠다.<sup>14)</sup>

14) <야쿠비안 빌딩> (01:25:35)



타하는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원리주의자가 된 것에 대해서 관객은 모두 그에게 공감하지만 종교에 선동되어 무분별한 테러를 저지르는 일에 참여하는 타하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다. <야쿠비안 빌딩>의 원리주의자들은 사회와 국가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여 그들을 선통하고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그들을 이용하는 실태를 보여 주면서 극단적 원리주의 이념의 위험성을 경계한다.

## V. 결론

영화 <가잘의 파>와 <야쿠비안 빌딩>에서 평범한 시민이었다가 원리주의자로 전향한 두 인물이 등장한다. <가잘의 파>의 리샤는 폭력배 아티프에게 구타를 당한 이후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원리주의 단체에 가입하여 골목을 돌아다니며 크고 작은 악행을 저지른다. 반면 <야쿠비안 빌딩>의 타하는 개인에 의해서가 아닌 국가와 사회의 횡포에 의해 원리주의자가 되었다. 타하는 개인적 복수가 아닌 국가를 변화시켜 보려는 생각으로 원리주의자가 되어 고뇌하고 갈등하지만 결국 개인적 복수를 감행하고 생을 마감한다. 리샤와 타하는 영화 속에서 성격이 변화하고 내면의 갈등을 겪는 ‘다면적’, ‘역동적’ 인물형이다.

<가잘의 파>의 위선적 원리주의자 리샤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원리주의 조직의 셰이크와 원리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도 맞지 않는 리샤를 받아들이고 국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이나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은 리샤에게 시키고 자신들은 그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영화에서 원리주의는 무조건 신의 뜻이라며 그들의 극단적 이념을 일반 시민들에게 강요하고 신의 법뿐만 아니라 국가의 법에도 어긋나는 행위를 저지른다. <야쿠비안 빌딩>의 원리주의자들도 사회의 차별을 경험하고 불만을 가진 타하와 같은 인물을 원리주의자로 끌어들이 전사로 키운 뒤 그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두 영화에서 원리주의자들은 모두 이념적 원리주의에 빠져 성격의



변화나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 ‘평면적’, ‘유형적’ 인물형으로 영화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된다.

<가젤의 피>가 이념적 원리주의자만 등장시킨 반면, <야쿠비얀 빌딩>은 셰이크 살만과 같은 ‘종교 엘리트’와 이맘, 셰이크 샤키르 등과 같은 원리주의 조직에 속해 있는 ‘이슬람주의자’ 두 가지 유형의 종교주의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두 영화에 나타나는 원리주의자의 공통된 이미지는 그들이 모두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단원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지도부는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고 개인을 희생시키는데 거리낌이 없다는 점이다. 두 영화는 극단적 이념에 사로잡힌 원리주의를 더욱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주제어: 이집트 영화, <가젤의 피>, <야쿠비얀 빌딩>, 인물 유형 분석, 텍스트 분석, 이슬람 원리주의 표현과 인식에]



## 참고문헌

### <영화>

The Yacoubian Building. 2006. DVD. Directed by Marwan Hamed. USA: Strand Releasing.

Deer's Blood. 2005. DVD. Directed by Mohamed Yassin. [English – Arabic DVD].

### <단행본>

김성곤 (2017). 『처음 만나는 영화: 내 영혼을 울린 문학텍스트로서의 영화』,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p. 12.

김용수 (2015). 『드라마 분석 방법론』, 서울: 집문당. pp. 229-231.

사메 나기브, 김용욱 (2011). “이슬람주의의 과거와 현재”, 『마르크스21(9)』, pp. 253-281.

수잔 헤이워드 (1997). 『영화사전, 이론과 비평』, (이영기, 옮김). 서울: 한나래. p. 283.

Kepel, Gilles. (2003). *Muslim Extremism in Egypt: the Prophet and Pharaoh*,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149.

Mosharafa, Eman. (2017). *Terrorism in Egyptian Cinema*, LAP LAMBERT Academic Publishing.

### <학술 논문>

김능우 (2011). “이집트 사회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작품과 2011년 이집트 민주 혁명의 연관성 모색”, 『아랍어와 아랍문학』, vol. 15, no.1, pp. 49-75.

서정민 (2002). “이집트의 종교엘리트와 이슬람주의자 –분열과 대립–”, 『종교연



- 구』, 29집(2002년 겨울), p. 172.
- 안 신 (2010). “서양 영화에 나타난 이슬람에 대한 편견에 관한 연구”, 『한국중  
동학회논총』, 제30권 3호, pp. 165-190.
- 인남식 (2013). “2013 이집트 정변(政變)의 함의와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13-24, p. 6.
- Birnbaum, Sariel. (2013). “Egyptian Cinema as a Tool in the Struggle against  
Islamic Terrorism”,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25(4).
- Gardaz, Michel. (2016). “The Path of Jihad in the Yacoubian Building”, *Journal of  
Religion & Film*: Vol. 13: Iss. 1, Article 4.
- Khatib, Lina. (2006). “Nationalism and Otherness: The representation of Islamic  
Fundamentalism in Egyptian cinema”,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Vol. 9(1), p. 67.

논문접수일: 2020년 01월 30일

심사완료일: 2020년 02월 12일

게재확정일: 2020년 02월 16일

